

# “고향사랑기부하고 치즈 받고” 안전한 명절 위한 종합대책 가동

### 임실군, 2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 진행... 찾아가는 특별홍보 나서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임실군포 고향사랑기부금을 집중 홍보하는 감사이벤트와 함께 찾아가는 특별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군은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고, 터미널과 역사 등을 찾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이벤트 기간에는 임실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차로 응모된다.

군은 이 중 20명을 추첨하여 3만 8천 원 상당의 임실치즈 및 유제품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치즈 답례품은 기부자의 73%가 선택하고, 시중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답례자 발표는 향후 개별 연락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특별홍보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관내 역사와 터미널 및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는 리플릿 등을 배부한다.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할 경우 20% 할인된 가격으로 치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임실군은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고, 터미널과 역사 등을 찾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군은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금 사업도 추진한다. 기금사업은 관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건강에 좋은 임실치즈 유제품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농촌유학 빈집 재생사업 등 주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챙기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미래세대로의 투자에 집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과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 30% 상당의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모든 농협은행 지점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에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모든 기부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하고, 보내주시 소중한 기부금이 미래세대에 품과 희망이 되고, 군민들에게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설 명절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안전'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품목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명절 다소비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품목은 채소류 9종, 과일류 8종, 버섯류 3종, 견과·종실류 1종 등 총 22품목이며, 각 품목에 대해 463가지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영일 군수는 “설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께 안심하고 우리 군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견과·종실류 1종 등 총 22품목이며, 각 품목에 대해 463가지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영일 군수는 “설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께 안심하고 우리 군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순창군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신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신덕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 일환으로 주민위원회와 주민대표 및 사업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우수사례 선진지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활성화방안 및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운영 사례를 들으며, 신

덕면에 맞는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신덕면 주민들은 강진군 성전면 행복문화관을 방문하여 거점시설을 견학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지원 운영 시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음 견학지인 담양군 대덕면 행복나눔터에 방문하여 행복나눔터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례를 들으며 신덕면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보건 의료·교통·도로 복구 등 7개 반 종합상황실 운영

남원시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귀성객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보건 의료, 교통 대책, 도로 복구 등 7개 반으로 구성되며, 재난 예방 활동 및 사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설 연휴 전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시는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명절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청소 민원 처리반과 특별 상황반도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공직자가 앞장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이웃 돕기와 위문, 봉사활동을 펼쳐 모두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남원역과 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캐릭터와 귀성객맞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일 남원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안전·의료·생활환경 등 7대 분야 체계적 대책 시행

순창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안전, 의료, 생활환경 등 7대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각종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관리, 교통·물가 대책, 의료 서비스, 재난 대응 등을 총괄하는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창시장 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대

체 상황을 별도로 운영한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비롯해 성묘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지도는 물론, 교통사고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응급진료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 구급대와 112 순찰차를 활용한 긴급후송체계도 마련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모든 군민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남원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대비해 예년보다 8일 앞당겨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산림 산불예방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70%의 산불이 불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산자 실화

의 실수로 인한 산불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설 연휴에도 본청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진화대(1개소) 운영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나서며, 보건안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안전교육을 1월 31일 실시하고, 공식적인 산불방지 활동의 시작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2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소방서,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순창소방서는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소방공무원 135명, 의용소방대원 430명, 소방차량 24대 등을 총동원,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에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사항은 △소방관서장 화재취약대상 현장확인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 안전관리 지도 △소방관서장 현장 지휘 철저 및 인명구조 중심 현장대응 체계 확립 △취약지역 17개소 기동순찰 △의용소방대에 할 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출동로 확보 등이다.

윤중선 현장대응단장은 “명절 기간에는 음식 조리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한다”며 “군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설 명절 소방드론 활용 화재예방 순찰

남원소방서 대응총괄팀은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에 소방드론을 활용한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그간 소방 펌프차량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시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많은 구역 순찰할 수 없었고, 특히 주거밀집지, 상가밀집지 등 통행 곤란 지역을 샅샅이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을 통해 시야 확보가 가능한 소방드론으로 화재·구조·구급 건수가 평일대비 증가하는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집중순찰(28~30일)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